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등록번호 제 디2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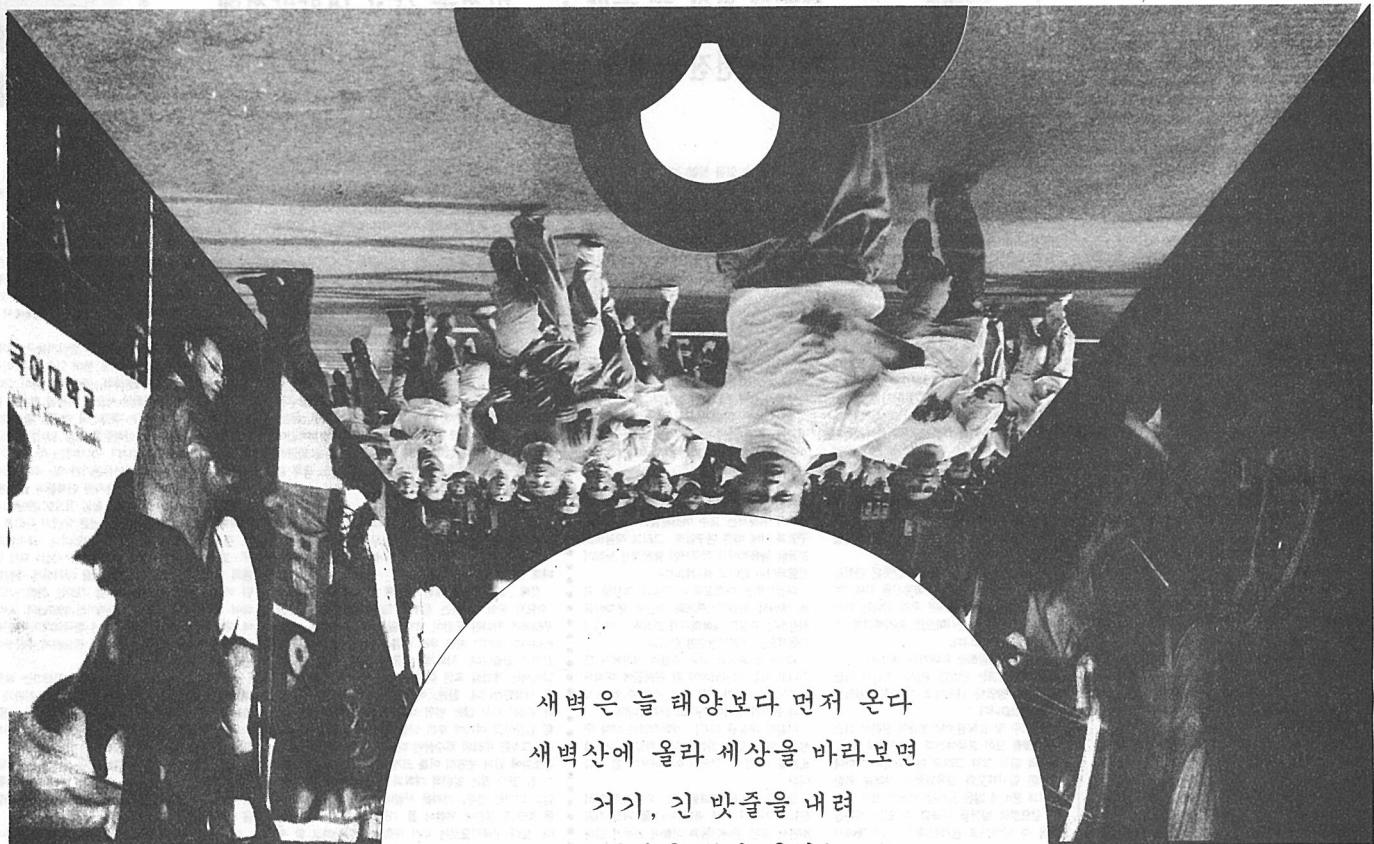
발행주	집	인	방	민	만
인	전	인	방	민	현
집	인	인	방	민	홍
인	인	인	방	민	
인	인	인	방	민	

외 대신문사 ☎ 062-7128, 961-4151
 외 대학 보 ☎ 061-4152, 961-4153(FAX)
 학생회 ☎ 033-941-4130
 130-79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창산리 산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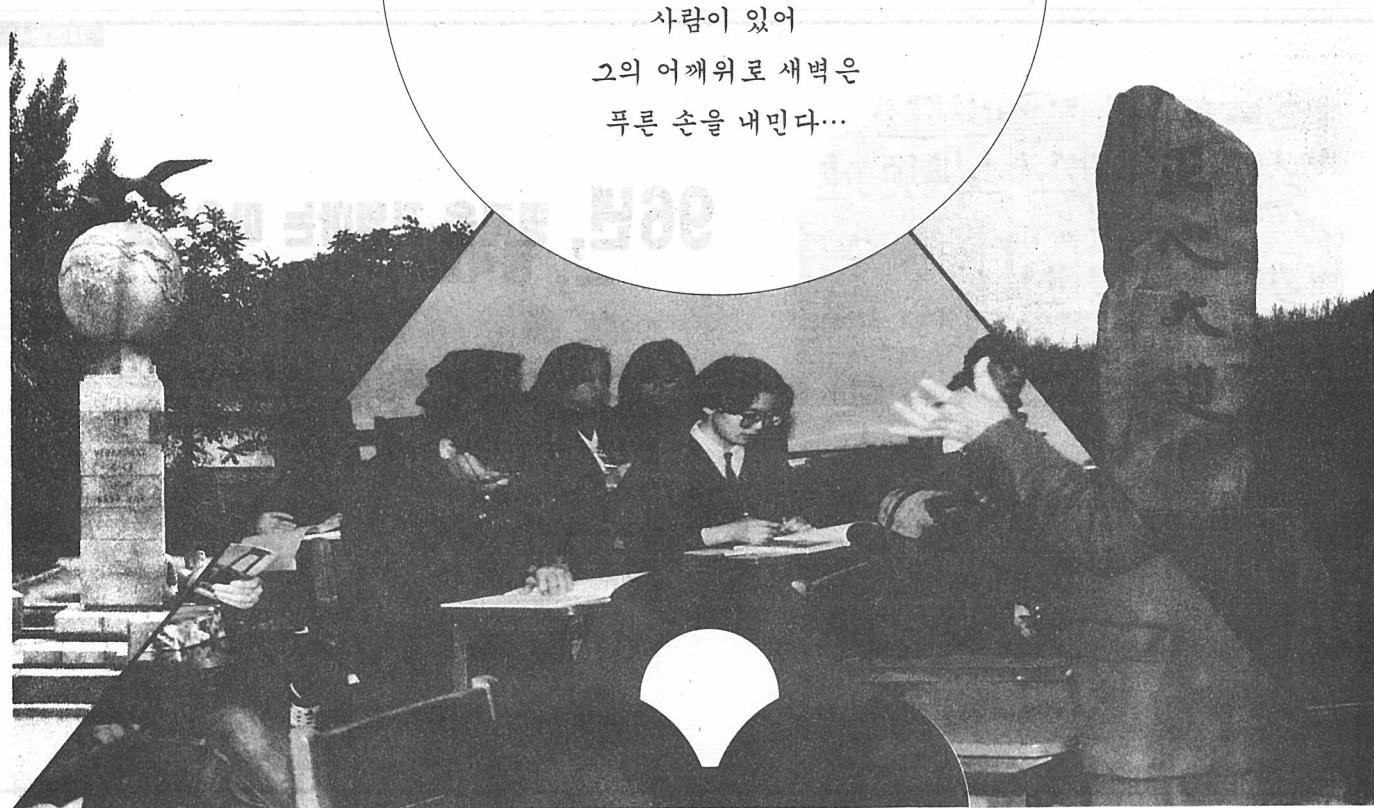
인쇄인 송재봉

제658호 1996년 1월 17일(수)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1



새벽은 늘 태양보다 먼저 온다
 새벽산에 올라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 긴 밤줄을 내려
 태양을 끌어 올리는
 사람이 있어
 그의 어깨위로 새벽은
 푸른 손을 내민다...



외대

32호, 문학상
12호, 학술상

시부문

당선작

당선소감

사내는 담배를 끼운다.
잠시 그의 머리 속에 지난 겨울
젊은 단상 몇개가
털어낸 채처럼 퍼르르 떨어진다
그렇지
낯설지만 익숙한 나이를 더하고서
달라진게 있다면
아주 오래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럼수록 조급한 마음을 다스려야 하지만
사내는 라이더와 쇠부루를 몇번 굴린다
요즘 부식물만 틱틱거리고
종종 불꽃을 보여주지 않는
사내의 궁짓거리는 삶
구름 그림자가 지나니 때마다
몇번씩 사내의 그림자가 지워진다
어둠에 익숙한 자들에게 낯이란 얼마나 어두운 곳인가?
흔리를 들어다보며 기억해낸 산적은
쉽게 추이 되어버렸다
사내는 다시 담배를 넣고 생각한다
라이터의 본질이 불꽃이라고?
수천년 전부터 지하의 어둔 곳을 훑어다니며
겨우내 담배 불꽃 하나 태워주기 위해
그 많은 시간을 걸더니 왔던가?
이렇게 깊힌 암죽 기스
흔들면 거기에 굽질된 세상도 따라
흔들된다



김종보
<서학·서반아이어 2>

우선 변변치 않은 제글을 뽑아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솔직한 심정으로 기분은 좋지만 두렵습니다. 언젠가 아주 멋진 당선소감을 몇번이고 구상하다 지우곤 하던 때가 있었습 니다. 저에게 이런 변화는 절망에 대항할 만한 희망의 백신같은 것입 니다. 두렵지만 아주 오래 기다리다 보면 그것도 쉽게 물러 터진 편안함이 되어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나. 악속드리고 싶지만 어길 것 같아 악속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더 사랑하는 법을 알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사원문학반 분우들에게도, 조용히 지켜보던 화기행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함께 해야 할 이들을 침 많지만 이런 공간이 너무 거추장스럽습니다.

샌드위치와 삶은 계란, 그를 위한

그는 딱딱한 빵껍질을 떼어낸다
빵 사이에 늘린 치즈만큼의 넓이
그 진지한 부른만을 청하지
너무 솔직하면 덜익은 밀가루처럼 비위가 상하는 법이니까
그는 빵의 옆 구리를 떼어둔다
아재와 황색 치즈가 허락한 미끈한 이빨 자국
빵 틈에서 훌려나온 허약 액체가 자국을 덮는다
찰에 베일 때 언제나 그랬듯이
신음처럼 과장된 봉비들이 많은 법이지
눈물따위로 아픔의 통증을 구걸하는 시대는 한풀 잊어
아무에게도 관심의 선물을 받아본 적 없는 순
빵을 된 그의 손에 기억할 만 한 역사가 있다
역사랑 힘 있는 자들이 찰로 쓴 문자특성이지
다들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흥터를 인정하면서
좋지 못한 괴어는 억제나 흥한 열록을 만드는 법이니까
자신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몇 개의 사소한 사건들,
흉터를 보며 광우한 괴어를 돌아보는 사람만은 어리석은 자가 있을까
모두 절질 같은 것에 불과하지
제란을 벗겨낼 때에도 그랬듯이 절질들이란 얼마나 악해 보이는가?
하지만 한 번 절질 속에 있어본 자들은 알리라
절질 속에서는 많은 보호막을 깨뜨리고
과감히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예상치 못한 일이다.
그의 손은 섬세하게 계란 절질을 벗겨내고 있다,
절질에 계란의 속살 조금도 발라내지 않고.
말랑말랑하고 허약 흰자 위에 까만 손때가 묻는다
괴어랑 그런 손때망도 못한 것이었으니
본질은 노른자처럼 손때따위로 더럽혀지는 일이 없지
상처 받는데 익숙한 자들은
앉아서 식사를 기다리는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아
한때 진지했던 상처들도 잊혀질 즈음되면
식사가 끝난 빵부스러기나 계란껍질처럼
기억 속에서 처우는 것조차 귀찮아지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때가 있어
너무 건드리면 끓어서 터지는 법이니까
그는 딱딱한 빵껍질처럼 시계로부터 시간을 떼어낸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를 위한 진지한 석사가 끝났다

심사평



김종보 (<방종>
등), 임진순 (<1995년
그리고 離忍> 등),
인은주 (<여우의 槩>
등)의 작품을 가장
재미있게 읽었다.

김종보의 경우, 밀
솜씨도 뛰어나고 예
시지가 분명하다. <
샌드위치와 삶은 계
란, 그를 위한> 같은

신경림 <시인>

시는 샌드위치와 삶
은 계란을 먹는 과정
으로 비유된 삶의 궤
적이 자못 호소력을 갖는다. 알레고리도 전박하지 않다. 근
근한 가족관계를 낙실로 염은 <식구>도 작자가 상당한 숨씨를
가졌음을 알게 한다. 하지만 <방종>이나 <회서의 세박> 같은
시는 많이 들어본 소리라는 흡이 있다. <유년의 방>이란 부제
의 <기악>도 <유년의 방>이라는 부제 자체가 진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루었던 소재요 기법이다. 다만 <유리공>에 대하
여라는 부제의 <기악>은 유리공으로 비유되는 연상의 전개로
인해 시를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 일련의 <기악>은 차라
리 부제를 제목으로 삼았더라면 풍을 뻔했다.

임진순의 작품은 여러 편이 최근 학생들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소재를 가져온 작품들이어서 눈길을 끈다. <화년 28기>
<일사 시험장에서>가 현실적 고민을 다루었으면 <대학로
사거리에서>는 젊은이의 꾸밈없는 꿈을 소재로 하고 있다. 시
가 말장난이나 관념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크게 바람직
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데 작품 사이에 편차가 너무
심하다. 심한 것은 같은 작자의 작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
다.

인은주의 시는 우선 잘 읽힌다. 주제도 분명하다. 하지만 <
여우의 槩>은 정신의 문제를 다른 작품으로 전개에 무리가 있는
데신, 시투리자 귀에 거슬린다. 남들이 많이 써먹은 방법
이어서다. <기능> 같은 방법도 이미 여러 사람이 시도한 것이
어서 신선감이 없다는 점도 작자는 알아야 할 것 같다. <복삼
덕씨와 양조순씨> 같은 평범한 이야기를 서사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은 높이 살만 한다.

이상의 작품 가운데서 김종보의 <샌드위치와 삶은 계란, 그
를 위한>를 당선작으로 임진순의 <화년 28기>를 차기로
뽑는다. 김종보의 시는 섬세한 시적 감각과 상상력을 높이 샀
으며, 임진순의 시는 젊은이들의 고민의 담시라는 점을 감안했
다.

“이번에 정차할 역은 외대앞”

“이번에 정차할 역은 외대앞, 외대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학교앞역 이름찾기를 꾸준히 벌여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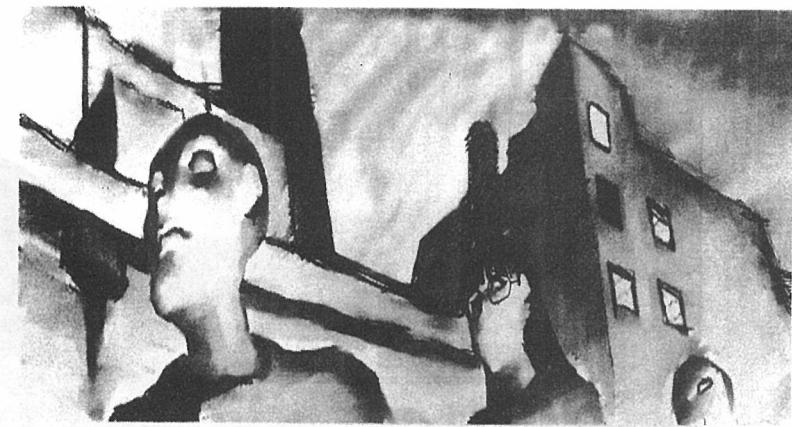
휘경역이 96년 1월 1일부터 외대앞 역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우리손으로 얻은 우리의 역이름

이제 ‘외대앞 역’에서 내리십시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재회에서 그런 말을 들어야 할까. 머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가슴도, 예민했던 말초신경도 모두 가라 앉았다. 도저히 술에 만취된 사람이라고 각되지 않을 정도로 진지하게 단문을 부수시더라. 출사 기도하는

우리는 맘과 창작의 생맥주를 비워가며
갑자기 추위진 날씨에기, 화회에서
읽고 있는 사회과학 서적에 대해서,
온갖 영화 베로나기의 이중생활에 대
해서 떠들었다. 그리 무겁지도 그렇다고
천박하지도 않던 그날의 화제를 나
는 전해 거들지 못했다. 미처 처음부터
잘못 꾸민 건 단조처럼, 비틀린 마
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시연이의 후배들은 먼저 들어갔다.
언니와 자취를 하고 있어서 귀가 시간
에 자유로울 수 있었던 시연이는 우리
와 함께 김자탕을 앞에 놓고 소주로
이차를 했다.

지금 돌아보아도 그때 내가 왜 그토록 장황하게 떠들어 댔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 얘기를 늘어놓으려는 생각도 애초부터 없었던 듯 하

그리고는 생활수준에 애초부터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그 당시 대학원이나 사업인의 입장에서 일과를 보면서 깊고 지루한 애로를 느끼거나, 그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했다는 것은 눈치채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소주 몇 잔이 긴장하게 짜증이고 나온 유행을 들었을 때면 대도 아니었다.

시연이가 “그냥” 국민대학을 주제로, 아니면 그녀가 “그냥” 택시비를 경비주제로 그려내고 말하고 싶었으니까. 그에게 그저 그 당시의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중학교 때부터 한 학회를 다녔던, 젊이 그 당시 대학원이나 대학교에서도 탈어 놓지 않던 예술人们对 그걸 그냥 생각했었다.

“……며칠전 험과 술을 먹어서~ 웬
일이가 싶었는데 몇 잔 마시면서 헝이
울 런더리니, 우리형 재우 취석한다고
여기까지 뛰어 다녔었지. 그게 언젠가
풀 끌고 살았던 회사였지 아니거나 농부
에 왜 놀았는지도 아니…… 그게 회사에서는
보증보험으로는 신원 보증이
안 된다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겉으
며 떠나셨지. 떠난 이후에, 어제
우리 형제들에 보증을 안 서주는 지
나니? 두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도로 가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딴지,
우리 형제들이 하루종일 술 시로와
취해버리고서 하루종일 술 시로와
술에 고이고치하고, 하루 종일 맙이
대려나. 술 취해서 물어 오시는
걸로 집안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부
었어. 언젠가 한 번은 너무 진지하게.

당선소감

“힘들때마다 나의 방패가
되어준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다시 겁려온 전화에서 직접 입을
글이 담신 「가족도 아
니 남친이라는 리듬은
한번 다운부터는 복권
에 당첨된듯한 느낌이
온다. 이처럼 애매한 기
분을 느끼게 된문은 학
교 홍보문 품을 나서는
순간부터 읊모한 듯한
후회가 무지막지하
팀이다. 그걸 집에 놀아온
다시 알아본 내 등장인물
들은 편안해 보이더군. 그리고
이어온 주위의 평은 왜
그리 예상치 못하게 만들던지...
솔직해지는 것은 내 글은

심사위원님께 들이킬 수
없는 실례가 될 것이다.
어쨋든 나는 문학상 소
설공모에 당선한 것인
다.

이문동에서 또 한번 보낸 지난 봄 그리고 여름, 가을, 생활해보면서 고민하고나니 몹시 아팠던 날이 더 많았지만 그때마다 흥미로운 방해가 기꺼이 되어온 척하고 순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거거나 아플 때가 더 많다는 그들에 대해서는 생각은 여전히 빛으로만 여전히에는 빛돌록 한번 안하려고 몇 배로 깊이 숨을 부자가 켜졌다.

김영현

〈소설가〉
대학문예가로 일한 춘운문
은 구사하는 언어나 사고로
하다는 게 있다. 그런 의
이번의 네 작품도 무척 흥
다. 다만 문학 역시 언어
예술이기 때문에 저기 염
된다. 이를 지적해 두고
면 문학적 언어가 많은
의 수사법에 의해 구사되
지려고 그것은 이미 아니거나
된다. 먼저 견고하고 정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격(格)이 있느냐고 파격(廢

“문학후배들의 열정에 깊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바이다”

다음은 내용의 문체인데 무엇을 어떻게 쓰았던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장을 두고 향어·나어가 하기 차이인 (牛)(牛)이다. 즉, 화두인 것이다. 심대의 어울림을 천천히 있는 수 있지만 쉽게 문장 천천히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문학이나 글로 인생과 샷방에 대한 충직 경험과 지혜를 요구하기 때문이니요. 요즘 짚은들은 영화나 비디오, 컴퓨터 등의 영상매체에 문학이나 많은 문학 문학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현실社会의 음모·편린도 수반해 수가 있다. 먼저 솔직하고 갑작적인 을 주구단지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 부딪힐 때마다 시하고 문학이나 글을 주제로 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다. 문학이나 글은 시기마다 리얼리티와 물의 차이가 있다. 문학은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해보자. 본질적으로 물이 되어야 할 수 '자원'이다. 말은 있는데 있어서는 하지 않고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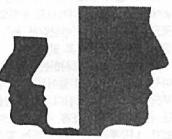
작적 고뇌가 없는 영상이란
제작자에게 베풀고 싶은 것이다. (모든)
희로애는 많은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그 속에 나오는 배우
등자에 먼저 취미있는 것과
세 이론은 같은 어렵고 힘들고
그 즐거움을 감동이나 무기
할 수가 없다. 문학에 한면
못한 흥미로운 한 면에 한면 못한
민족이나 성장을 것이다. 밤
온갖 시장과 어제 인생을
갖는다.
도는 '이정준씨 종의 작품집
전시회 비평'에서 교육 내용을 담고
작가는 이 어려운 주제를 고집하고 있다.
하고 유통계를 잘 끌어가고 있다.
작가의 작품집의 흡은 결말은

에 '고민남새'의 꼬리를 잡았을 것이다. 시연이를 때 옮겼을 것이다. 결심한듯 우산을 쳤다. 그의 미리위로 무수한 빗방울이 떨어진다. 나처럼 허들을 본다. 겨울이 끝난 후에 후련하게 쌓아져 내릴 저 세 빗방울들의 운명을 분명. 예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와 계모, 혼혈아인 이복동생(네모가 데리고 왔던 아들)인데 정희는 이 복동생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때문은 인생살이 같은 걸 깊게 새겨져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그것을 운전해 드러내는 면에 실패했다. 이유는 주인공인 화기의 내면을 그려내는데 구조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 단장 대로 무용 브랜드

하고 나서 그를 부렸다.
‘새길’은 상부적인 구도를 하고 있다. 혼인과 대신 그리고 그 사이에 활동하는 이들이나, 미망자와 함께 황금 분할이란 수 있는 삼각관계인 셈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 상부적 구도 속에 구속된다. 초반 혼인의 아픔과 그리움을 살피면서 수놓아 두고 있다. 작품 끝과 같은 대신 문장의 밀도로 만족시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분 정한 감동이 있다.
‘새길’을 주제한 없이 기꺼이 당선으로 선선했다.
더욱 경쟁하기를 바랐던 문화 후배들의 열정에 깊은 격려를 이끼지 않는 바이다.

시나리오 부문
당선작



동장연설

남주시: 일본문화와 천일부 호 대죽같은 성품이나 시대의 조류를 잘못 만나 기회주의적으로 기울이버린, 치밀하고 불같은 성품의 소유자.

본처: 광생 험장같은 남편을 수발하다 두 아들을 일으키는 유행으로 정신분열을 일으켜 죽는다.

덕구엄마: 소 두마리에 남씨 집안으로 팔려와 종실이를 하면서 남주사와의 사이에 떠구를 낳는다. 본처의 팔락으로 인해 심한 고초를 겪는다.

남덕문: 경성법학전문학교 출신의 마르크스주의자. 남주사의 첫째아들. 투철한 역사의식으로 인해 장자권을 포기하고 6·25가 터지기 전 월북한다.

남덕준: 양정고보를 졸업하고 격동기의 시대상황속에서 가문을 지켜내기 위해 고생에 따른다. 현 대문의 비밀집회에 참석하였다. 이유로 풀려온 후 감옥에 들어가 거기 흉살당한다.

남덕구: 어린시절, 본처의 심한 혐대와 신분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게된다. 이 시대 전형적 아비지상, 한노본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듯하지만 정작 한노본의 출생과 비밀을 알게 되자 강등하여 그를 포기한다. 아들 주장을 사랑하지만 현실을 끌어들이는 과거의 악동으로 인해 주장을 차갑게 단절한다.

한노본: 피난 도중 일가족을 폭격으로 잃은 월남실향민 1세대. 부잣집 양녀로 들어가지만 늘 돌아갈 고향을 꿈꾸며 자신의 정체성을 풀고자 연인사이에서 확인하여 듣는다. 실연의 상처를 딛고 흘러온 풀려온주의의 꿈을 버리고 독일 유학길에 오른다. 언어학을 전공하며 두번다시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것을 다짐 하지만 오랜 고독과 허무, 이국생활의 적막감으로부터 도피해 한 남자(자자권)의 아내가 된다. 그의와 사이에서 은주를 낳고 삶의 활력을 느끼지만 생활에 대한 허무와 구원에 대한 좌절로 인해 미국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박자권: 월남실향민 1세대로 4·19를 거쳐 통일화길로 오른다. 베를린에서 나립을 만나 결혼한다. 박자권에게 불과되지만 이후 더진 등 베컴사건과 때마침 부친의 사망으로 돌아갈 곳을 알아야 한다. 남한체제에 대한 환멸과 신변의 위협을 느껴 제3국으로의 망명을 결심하다가 대만 국적 신분증을 위조하여 동독을 거쳐 아버지가 계신 북한으로 월북을 단행한다.

1. 구현버스 안(현재) (F. I)
(마른 하늘을 일몰짜 기름트 조개는 두이 번의 천봉소리. 세진 구름이 빠른 속도로 물려가기 금직한 빛방울이 솟아진다. 국도를 질주하는 시끌벅적한 전경. 무표정한 운전기사의 이미지를 티고 버스 안이 드러나면 버스 맨 뒷차창에 앉아 창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주상, 주상의 어깨에 기댄 차 곤하게 자고 있는 은근. 창가에 비친 주상의 얼굴을 세차게 때리는 빛방울. 빛방울이 주루를 터져 흘러 유리창에 비친 주상의 얼굴을 일그러뜨르면서 주상의 긴 화상이 담담하게 시작된다.)

나레이션: 아필적 내가 경험했던 불안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난 몸서리 치도록 무서워 했었다. 무엇이 이토록 아버지와 나를 절지하게 단纯洁되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메인 타이틀이 뜬다. (아버지의 나라) (F. O)

2. 주상의 집(금자(자진)) (F. I)
(메인타이틀이 사라지면 햇하니 삶을 예이는 흑화와 바깥소리. 한 사내아이가 맨발에 펜바리도록 뛰며 소리내고 끝을 응시하고 있다. 사내아이의 시침으로 소란스러운 곳을 바라보면, 원내에서는 여자의 비명. 터져나오는 분노에 한 목소리)

남덕구: (목소리)
이 년은, 물질조차나 빠바로 못해서 빠빠지게 구해온 걸 다쳐 죽이고 난 도대체 뭐 하는 년이야? 암, 이 개같은 년아!

(자정은 넘은 듯 인적과 빛방울이 드문 드문 주택과 비평소리와 함께 바깥으로 새어나와 어둠속으로 힘없이 사그라든다. 곧 목모동이나 펜바리도록 쪼그리고 앉아 오들오들 흘리는 10살 기령의 소년. 불안한 눈빛으로 기관을 향해 가제도구를 때우부수는 소리. 거친 육지거리. 유리창에서는 소리와 어울려 커지는 여자의 비명과 어둠속에서 울고 울고 있는 종족이다. 소년 주상이 흐느끼는 하연입을 풀고 멀리서 비쳐오는 후레쉬 불빛. 파출소 순경이 저먼에서 다이오자 소년주상. 끝없이涌涌으로 숨는다. 순경이 다가와 후레쉬로 괄목한을 쓰며 비춰본다. 후레쉬 불빛이 위협적으로 소년의 곁에 던져온 들판순경의 인기척에 제자리로 물려 간다. 인도의 핏물을 허옇게 내리우는 소년주상.)

중략 -

8. 집 앞길(자녀)
(주상의 배를 풀고 날길을 헤기며 걸고가는 남자구. 여기저기서 펴풀한 내다보며 수근대는 등네사람들. 담황해하는 슈퍼 아줌마의 모습. 주장을 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남덕구)

9. 안방
(방문이 흑 열자리 방비단에 쳐밖하는 주상. 비자학대를 풀어 깊이 깊어지는 주상이 허겁지겁 헤집어온다. 비밀을 지르며 유틸짓는 남자주. 밀리려 들어오는 주상 양미까지 휘갈기는 남자구. 흡신 일어맞아 벽모퉁이에 쳐밖해 안스레 걸어놓고 있는 주상. 눈물도 마른지 오래다. 아직 직위에 펼친 둘만한 남자구. 주장을 칭고로 끌고나가면서 퍼붓는다)

남덕구: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마누라 티미에 애미. 새파란 자수새끼 도도길에 기질길에 벌써부터 쌩수 노래. 너희들은 도대체 나나태어 어찌겠다는 짐짓들이야? 암! 왜 날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는 거냐고!

중략 -

자막: 1938년

(씨꺼눈이 내리는 사립문 너머로 삼삼개 한 미리가 소란스런 분위기로 불안한 듯 물고 잡아온다. 미리가 꿈틀거리며 배회하고 있다. 한쪽에는 외양간에 소 두마리가 하연 입김을 품은 듯한, 누군가의 머리채를 훑어 갖고 있는 듯한 중년 여성의 쌩수처럼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고, 이를 밀리려는 노부부의 애원조의 긴장함과 일랑으로 당하는 듯한 젊은 여인의 애끓는 목소리가 깃난 아기의 친진 울음소리와 한데 어우러져 비장하게 배어 나오고 있다.

방문이 흑색 열리며 금방이지도 숨이 넘어갈 듯 지쳐 울어대는 아기를 놓고 실강이 벌이는 중년여인과 젊은여인)

본처: (광대뼈가 풀 뛰어나온 표도스런 얼굴로)

아버지의 나라



뇌구리- 아녀아. 나가 어-가- 오데리라고 말디랄라 했더니. 누가 의문 날씨 집안에 아들이 없어 너 보고 아들 놔 달라 했더니. 이 솔직한 년아. 뇌구리. 이거 안 놓나!

더구이미: (필사적으로 요람에 쌓인 어린 뇌구리에게 매달리며)

아는 안입니다. 차리리 날 죽이고 가이소.

더구야-

중략 -

27. 전각 안
남주부: 자. 자. 자. 자. 떨떠름한 거운고 따윌장 집어차우고 이보시요. 하야모또상. 우리 외제다 시장에 걸어 부르던 엔카나 오랜만에 한 곳 끊읍니다. 어여, 여기 정중한 병이 가져오나를 헤아모로를 쳐다보며)

(최영. 문을 탁 닫으며 안으로 들어간다)

최영: 빠져나온다. 그의 눈물이 어울로 ?

중략 -

하이모또: (술잔을 친천히 기울이며)
전행으로 떠나간 연인을 기다리며 비내리는 요고모마향에서 눈물로 부르는 순정의 여인의 이야기다. 사랑하는 연인은 물이을 줄도 모르고 오늘도 요고하마방에서는 비가 내린다? 기막힌는 전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중략 -

하이모또: (술잔을 친천히 기울이며)
(도도목하는 전화벨소리와 함께 동그란 초점이 확대되면서 드러나는 주상의 방. 이불속에서 불어드는 푸른수수온 순수한 부모는 이불 속으로 잠이들어온다. 잠에 취한 부모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주상)

주상: 누구십니까?

중략 -

44. 주상의 방(아침) - 현실(F. I)
(도도목하는 전화벨소리와 함께 동그란 초점이 확대되면서 드러나는 주상의 방. 이불속에서 불어드는 푸른수수온 순수한 부모는 운동장에서 자동차들로 밭다듬 풀도 없다. 주상. 불고에서 내리자마자 시계를 보며 뛰어간다)

주상: 누구십니까?

중략 -

하이모또: (금장의 이를 것이와다.)

중략 -

37. 최가철물 안
(금이치는 물길을 연상하는 듯한 국궁 활 모양의 문손잡이가, 투박하지만 딱맞은 길감으로 주상을 맞이하고 있다.)

중략 -

온주: (최영의 옆으로 천천히 다가오며)
본사에서 갑작스럽게 귀국일정을 알당겼나 봐요. 다음주 즐은 일본을 둘러다니기다면 어제와 시장이 촉박해서 부득이하게 오늘 불쑥 찾이벤거였다.

온주: (그제서 태연하게 다가서며 불만스럽는듯이) 일과를 빼면 저녁마다 아버지가 예상되는 거예요.

온주: (엄지 주상의 눈길을 바라보며)
맞아요.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우겨서 데리고 온거예요.

온주: (실검드를 흘낏 마신 후 비꼬듯이)
호. 보통 사이가 아니신 모양이죠?

온주: (기분이 뜻시 상한듯 주상의 얼굴을 노려보며) 적당한 목소리로 이것 보세요. 날 그제... 거래가 우리나라의 성사되길 바랐어 있어요. 여길 들리지도 않고 바로 일본으로 가려는 걸 봐라. 우겨서 데려온 걸 알기나 해욧!

온주: 저... 박은주라고 해요.

온주: 예...?

온주: 이제 바이어 왔을 때 봉역했던 사

립이에요.

온주: 기차 역(오전)

자막: 1945년 6월

(기이하게 하는 기차음. 운집한 수많은 사

람들. 한쪽간 전부에는 경용으로 끌려가는 어린소년들이 고사리손으로 눈물을 뒤드며 침장을 내다보고 있다. 무표정한 어린소녀. 돌립군을 저령하기 위해 마니본드를 휘두를 힘에 있는 공개 처형장의 일본현병. 그 옆에는 이미 잘린 목이 나동그라지 있다. 옆

자막: 1950. 5. 16

분처: (더운 편지를 움켜쥐고)
아이고. 더운어. 이 맘할 남아. 아이고. 아이고.

이 불효마신한 남아. 부모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가기는 아데로기노. 이복가서 우활란고! 아이고.

(카페라. 허리에 진정시키고 있는,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듯한 덕준의 눈빛을 클로즈업)

122. 6·25 전시중의 경남도경 취조실- 고문당하는 덕준
(깜깜한 화면에 텩크 자나가는 소리. 비행기의 기滋生소리로, 포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며 밀실에서 고문을 당하는 한 사람의 고통으로 일그러진 모습이 점차 밝아온다. 경남도경 취조실)

인문과학 분야 당선작

◆미셸 푸코의 고고학과 계보학

푸코의 고고학과 계보학의

I. 들어가는 글

한 시대를 어떠한 관점에서 정의하든간에 모든 비평가들이 동의하는 것은 195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서구사학에서 정서구조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서구조의 변화를 계통체계·계보학적인 교과학, 문학·그리고 자본주의 예술을 내재 논의에 따라 발전시킨면서 각각의 영역의 폐쇄형 형식들로부터 벗어나면서 일상적 사회현상과의 접근적 조성을 위해서 전문화된 그 문화들의 축적을 이용하는 1950년대의 계통사상가들의 계획·외연적 외화로 보면서 어려운 방식으로든 접근하는 근본적으로 결별한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강조하고자 하는 논의들은 텔모데나·憎愛, 페르지부지우의 대·정보화 시대, 지식인 등을 이 시대를 평가하면서 “탈(脫)”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 예술과는 깊이 달라지는 반면에, 또 다른 편에서는 이러한 정서구조의 변화가 근대지부지주의 축적과 경제구조의 침해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였던 표준된 문화현상이 아니라 1960년대 후반부터 이온 축적에 문제가 생긴 자본주의 진영 내에서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포드주(Fordism) 체계를 버리고 유연적 축적체제로 이행하면서 지분주의의 자본, 자본주의 경제학과는 주제의 문제는 “분화”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정서구조의 새로운 탄생과 함께 기관화된 체계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그런 새로움이 남겨놓은 것은 ‘정신분열’이라고 비판한다. 푸코는 이런 Modernity / Post-Modernity 경쟁속에서 Modernity의 전반적인 이해를 훑어보면서도 반영한 첫째계이며, 여기서는 푸코의 고고학과 문학의 공간이 아니라 본래의 공간을 추구하는, 다시 말하자면 이질적인 것들의 플랫폼을 주고자 하는 철학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역사의 방법론으로 전제사학인 방법론과 구별된다. 일반사는 문학으로부터 등장직이고 정형화된 문집을 구성하려고 하지 않으며, 선택위에 따라서 연속성과 총체성을 부여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있다.

푸코에게 있어서 고고학은 대상화된 관점이나 주제 위의 연관화로 규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언어와 언어학으로는 언어학이라는 것은 언어학자나 언어학자 등의 연속성을 그 각자의 방식에 따라 다양화시키는 개념들이나, 책과 책의 연속성을 미리 정해둔 시스템과 고지판으로 벌어지는 기존의 관점과 문제를 단위들이다. 그렇지만 그 자체로는 전제적 체계를 형성하는 원리에서 파악하는 행정학적 철학이나 표준화로 나타난 기호들에서 제작자인 개인의 창작이 찾아나는 해석학적 작업을 거부된다.

위와 같은 연속성의 직관적인 형태들을 부정하고서 푸코가 찾아낸 것은 지식으로서의 담론과 대개 기술이 속성을 그 각자의 방식에 따라 다양화시키는 개념들이나, 책과 책의 연속성을 미리 정해둔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철학이다. 푸코의 이러한 비판적 방식으로는 예술·문화·언어·기술·정치·경제·분석·단위들이다. 그러나 그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담론과 담론으로서 지식의 차원의 본질, 자신의 전위, 자신의 형식적 논리상 같은 것이 아니라, 즉 그가 제기하는 문제는 “지식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광활한 역사적 시기에 어떠한 지식이 어떠한 수준의 규칙이나 실증으로 흘러나 형성되었는가이다. 이러한 형식적 차원에서 푸코는 대략 두 가지로는 기호를 제시하는 것 같다. 첫째, “지식은 담론과 담론으로서의 일상적인 경험과 현상을 통해서 형성되며 (고고학 단체에서의) 담론, 둘째, “지식은 권리과 무관한 지식이라는 자율적 체계가 아니라 권리에 의해 지식이 형성된다(예술과 단체에서의) 담론”, 이것은 곧 지식의 형태에 따른 권리의 형태이다. 지식이 단순화된 실제 대상의 모방이나 표준으로 설명되거나 할 수 없는 실증의 충돌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증은 푸코에게 있어 특정 문학이나 예술의 강속에서 이루어지는 물질화되고 세도화되어 지역화된 공간·영향, 하여, 군집·감옥문화를 전제로 해서 발생한다. 이 같은 담론형성체는 푸코가 의도한 대로 두 가지 각도 - 담론적 형성규칙 / 권리 -에서 바라보고 푸코의 사유가 우리사회에 출할 수 있는 철학적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고고학 방법론

푸코는 바슬로나·강길법 등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도출되는 다른 여러 개념들(분단, 비약, 단원, 변이, 변환등)의 공통적 특징·분화·속성을 규정하고 현대 인식의 문화는 더 이상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빙漠의 놀이로서의 전통이나 항구적 토털이 아니라 한시의 중첩적 양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극단적 차이를 드러내는 단·극·변환의 문화를 보았다. 이러한 분석의 연장으로서 푸코는 문서(document)*과 기념비(monument)를 면밀하게 구분한다. 문서와 기념비는 외연적 범주로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에 반대 기념비는 여러 수준들로 수립된 계열들을 내에서 번별적 차이에 대해서 자신의 경계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념비의 대체적 기술을 지향하는 고고학이 불리으므로 결과를 푸코는 네 가지로 보고 있다.⁴

첫째, 지성사에 있어서의 비약들의 복수화와 충돌의 의미의 역사에 있어서의 장기지속(long periods)의 대우, 현대 역사학(아날리틱파)의 “장기지속”의 출현은 충

도식으로 환원 가능한 상이한 계열들의 개별화를 가져온다. 물론, 역사학적 탐구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불연속성(discontinuity)의 개념, 이제 불연속은 연속성을 선호하는 역사기록에 대해서 지워져야 되고 극복되어야 하는 역사적 낭만이 아니라 이제 역사가들이 물집처럼 주목하고 부각시키려고 하는 종족적 개인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기호의 연쇄가 언어가 되면 물집으로 그것이 주체(subject)와 일정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언어의 대상이 단순화된 사람이나 사태가 아니라 주제 또한 한정된 주제의 주체, 즉 기호로는 생활·생산·지식·심금으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또는 (모든) 경과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언어의 주체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철수가 제 자신의 입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언어의 주체가 철수가 철수로서의 ‘자자’가 아니라 철수가 ‘생기기’하고 있다.

□ 수험생의 이중고



한 수험생이 시험전날 책을 읽고 있다.

수험생의 두번째 입시 입시생의 절박한 상황 노린 악행

대학입시를 치루기 위해 상경한 지방출신 입시생들은 두가지 입시를 치뤄야 한다. 하나는 대학입시이고 또 하나는 시험 전날 방을 잡기 위한 입시다.

하지만 이 두 일시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하나의 입시는 합격 할 때 입학이나 면접을 얻을 수 있지만, 방을 구하기 위한 입시는 합격 할 경우에도 비거주로 고급으로 치러야 한다.

평소 만 5천원 내지 2만원에 여관의 숙박료가 입실처럼 되면 2, 3배 혹은 10만원도 넘게 받는다. 뿐만 아니라 당일 방을 빌려주는 하숙집의 경우 그 기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천자기별의 요금이 받고 있다.

관내에서는 영업장지 등에 적용한 규제를 내세우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여관, 하숙집들을 단속하고 있는지, 또한 단속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실로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대학당국도 지원학생수 늘리기만 급급해 이에 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있는 듯 하다.

결국 피해를 입은 것은 수험생이다. 복수지 원이 가능한 온라인의 경우 2, 3회 이런 여행을 전후로 전형표나 차장을 포함해 대략 1백만원 정도를 수험생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수험생의 부담은 매우 더러워지고 있다.

"수험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고자 전단과 대자보를 통해 무료로 방을 빌려줄 사람들을 넓혔다. 그러나 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방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캠퍼스 출하생회 여론조사국에서, 방 구해주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원경(사법·독일어교육 3·19)의 말이다.

물론 암시적으로 숙박료를 빙자나 이런 학생

회사에 동참해 방을 무료로 빌려주겠다는 사람도 있다.

학생회 사업에 참여해 방을 무료로 빌려준 이화(교사)씨는 그 의의를 이렇게 밝혔다.

"신문에서 입시생이 방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기사를 읽었다. 학교 가까이에 살면서 빙자 여유있다면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듯 주변에 사설집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상황을 알맞은 단체에게 이용하는 업자들도 주변에 많다는 것이다.

이런 외대숙박업자들의 자각과 함께 정부나 학교로부터 수험생인 대학이 마련되어야 할 일정과 대학 입시에 신경 쓸 수 있는

종료가 조성될 것이다.

김남근 기자

□ 이문동 속박업자들을 만나

"우리집은 그래도 쌈 편이예요"

복수 지원제의 영향으로 몇 년전부터 급격하게 본교의 경쟁률이 올라갔다. 결과적으로 학생은 전형표 등의 수입으로 이를 이기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시합이면 한 루 청기는 사람마다 있다. 바로 그들이 이문동 속박업자들을 있다. 때문에 그들로부터 손님을 받지 못한다. 때문에 그들이 멋있어 받는 것이다.

— 그렇게 올라온다 이유가 있는가.
— 아니 때문이다. 시간당 대략 1만~3천원 정도 받는 17일의 경우 전에 그런

손님을 받지 못한다. 때문에 그들이 멋있어 받는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알마인간.
— 만 7천원에서 2만 5천원 정도다.

— 본교가 본교사를 보는 17일(수) 방값은 어느 정도인가.
— 대략 6~7천원이 기준이다.

— 평소에 비해 너무 값은 물려 받는 것이다.

—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집들도 모두 높게 받는다. 우리 집만 쌈 밤을 필요 있는가. 사실 우리집은 그리 비싼 편은 아니다.

— 그렇게 올라온다 이유가 있는가.
— 아니 때문이다. 시간당 대략 1만~3천원 정도 받는 17일의 경우 전에 그런

손님을 받지 못한다. 때문에 그들이 멋있어 받는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알마인간.
— 그들이 단속은 어느 정도인가.
— 구경직원이 단속 나온다. 불법으로 걸리면 '임업 1일 징지' 등의 강경책을 편다고 한다.

— 주로 단속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 거리를 어느 정도로 통증시키라는 얘기가 하고 간다.

□ 대학생활동과 풍물

대학에서 찾은 멋, 풍물가락



"전 미팅 백번 할 겁니다"

이제 막 신입생이 되려는 한 학생의 말이다.

이성간의 교류가 활발화된 오늘날, 대학생이 된 후 갖게 되는 이성에 대한 구체적 기대가 분명 남녀 자유로운 대학이란 공간에서 교류가 예전보다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

물론 교내 여성친구를 사귀는 소위 캠퍼스 커플(Campus Couple)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다. 특히 서울캠퍼스는 하루에도 몇번이고 미처 할 수 있는 캠퍼스의 지역적 여건 때문에 캠퍼스 커플이 된 학생들을

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캠퍼스 커플은 거의 두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첫번째는 과나 동이리 혹은 기타의 모임에서 만나는 경우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는 사람을 통해 소개되는 단체미팅이나 일대일로 만나는 소개팀을 통해서다. 일반적인 캠퍼스 커플의 경우 전자에

속한다. 같은 동아리내에서 이상친구를 사귄 한 학생의 말이다.

"서로의 생활을 잘 이해 할 수 있고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항상 곁에 있어서 좋다. 하지만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같은 곳에서 사귀는 것은 그 사업을 통해서 더욱 친해질 수 있어 좋고 과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혜어졌다 경우 대부

분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때는 개인에게

나 집단에 치우칠 수 없을 정도의 상처가 남게 된다. 결국 그런 사귐을 하기전에는 많은 생각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만은 서로에 대한 이해도 다른 사귐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과에서 사귀는 것은 그 사업을 통해서 더욱 친해질 수 있어 좋고 과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혜어졌다 경우 대부

분에서는 군데에 가거나 여자는 학내 생

김남근 기자



□ 실천적 지성인이 되기 위한 예비대학인의 자세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새로운 사랑법 터득하기를...

고 자유로운 삶의 터전 위에 서게 된다. 여러분들에게는 미망 출신의 폐쇄성을 보내고 싶은 소망이다. 이제 문제는 이 새로운 삶·대학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개척해 갈 것인가이다.

필자는 그 균형을 '주체적인 자세'와 '합된 학문과 지성인의 실천적 삶', '사랑에의 문脈'으로 파악하고 싶다.

고등학교 때까지의 삶이 어찌보면 교육환경의 유도대로 '살아온 삶'이었다. 면 대학에서의 삶은 주어진 환경여건에 대해 주인翁을 선언하는 능력적으로 개척해가는 '살아가는 삶'이다. 따라서 새내기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과정을 거쳐 우리 외대의 어떤 하부나 학파에 입학하였든 간에 자기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라는 자세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공은 대학생활의 성과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관련 중의 하나이다. 어떤 전공이든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구현시킬 만한 부분이나 특별한 것이 있기 마련이다.

체질상 전공에 마음을 빼여 성취를 내는 경우, 문제는 자신의 취향·기호관과 전공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아내 거기

에 관심과 경력, 시간과 출부를 대상

할 때 실천적 지성인의 삶에 접근할 수 있음을 물لون이다.

그렇 때 묘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과의 눈동이'가 아닐까 싶다. 이제 새내

기들은 새로운 사랑법을 터득해야 한다.

대학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접근한다면 대상이 보다 쉽게, 보다 깊이 이해되는 법이다. 대학이 지난 모순과 고통까지도 함께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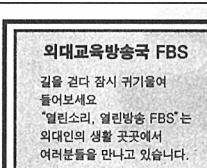
전공 속의 의미있는 것들을 열심히 사

랑하고, 잠깐 진리탐구를 위한 학문을

찾아내면서

대학에서 뭔가를 찾을 때 신경에 건강과 질병, 민족과 조국, 세계에 대해 가슴으로 얹으려고 사랑할 때, 우리의 인간적 사회적 의식은 한층 깊어질 것이다.

박재우
(중국어·교수)
본교 입학이 결정되는 순간, 신입생 여러분들은 기분으로 입시 위주의 빙강제적 교육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롭



박재우

(중국어·교수)

본교 입학이 결정되는 순간, 신입생 여러분들은 기분으로 입시 위주의 빙강제적 교육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롭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서로의 솔직함이 곧 믿음을 만드는 자리를 길망하며 대학이라는 거대한 공룡을 만나 살아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것은 입학 후 대학교가 적어거나 건물이 많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별명은 내걸 틀리지 않았다. 당시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는 대로에 대한 이해도 찾지 못했다. 대학이 지난 모순과 고통까지도 함께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된다.

전공 속의 의미있는 것들을 열심히 사

랑하고, 잠깐 진리탐구를 위한 학문을

찾아내면서

대학에서 뭔가를 찾을 때 신경에 건강과 질

병이 날 가능하고 있는 것이 너무 끈듯하다.

사람이 끊어내는 흥미로운 기관과 편집기

자는 것이었고 둘째는 담당자는 것이다. 미지막으로는 다양해지는 것이었다. 학교와 집민이 아닌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서로의 솔직함이 곧 믿음을 만드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던 남에게 부끄럽지 않고 내 삶에 당당해졌다고 느꼈다.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삶이, 살고 있는 삶이 당당하다는, 다른 사람의 삶도 당당한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 당시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는 대로에 대한 이해도 찾지 못했다. 대학이라는 풍물동아리가 기쁨이고 그리고 모든 모임에 베이지 않고 참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대학에 들어오기 전엔 난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살고 싶어 했던지 않나. 그리고 나는 영어 단어, 수학 공식이나 이론 솔직함과 당당함, 풍물동아리 퍼포먼스를 좋아했다.

而后, 대학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기쁨이 생겼다.

而后, 대학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기쁨이 생겼다.

而后, 대학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기쁨이 생겼다.

而后, 대학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기쁨이 생겼다.

而后, 대학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기쁨이 생겼다.

而后, 대학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기쁨이 생겼다.

而后, 대학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기쁨이 생겼다.

而后, 대학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기쁨이 생겼다.

而后, 대학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기쁨이 생겼다.

而后, 대학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기쁨이 생겼다.

而后, 대학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기쁨이 생겼다.

而后, 대학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기쁨이 생겼다.

而后, 대학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기쁨이 생겼다.

而后, 대학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기쁨이 생겼다.

而后, 대학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기쁨이 생겼다.

而后, 대학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기쁨이 생겼다.

而后, 대학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기쁨이 생겼다.

而后, 대학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기쁨이 생겼다.

而后, 대학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기쁨이 생겼다.

而后, 대학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기쁨이 생겼다.

而后, 대학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기쁨이 생겼다.

而后, 대학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기쁨이 생겼다.

외대인의 목소리

"우리가 담아냅니다"

제8대 참일꾼 참조직 참사랑하는 언론협의회

영자신문 Argus

아직도 Time지만 고집합니까?
우리는 HUFSAN
우리에겐 Argus가 있습니다.
신속하고 신도있게
여러분의 시야를 밝혀드립니다.

외 대 교 지

두통한 책 한권에

외대인의 가슴을 담습니

름, 여름, 가을, 겨울

색깔따라 그 옷을 갈아입는

외대교지

하지만 갈 같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외 대 보

외대인이라면 모두 기억합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보'

역사와 민중앞에 진실을 말해온

40여년 역사.

당당한 외대인의 자긍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보선정
'95 학내외
주요사건**

순결한 청년의 가슴으로



◀ 96년도부터 비어문 계열에 학부제 시행이 결정되었다. 학교당국의 공개적 논의없는 일방적 추진은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 올 한해 5·18 진상 규명의 합성이 드러났던 가운데 본교에서도 9월중 5·18관련자 불기소 결정반대와 학살자 처벌을 위한 학의대 회의·동맹휴업이 진행되었다.



◀ 본교 사학과 박창희 교수는 지난 4월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강일수사에 의한 조작사건이라는 의혹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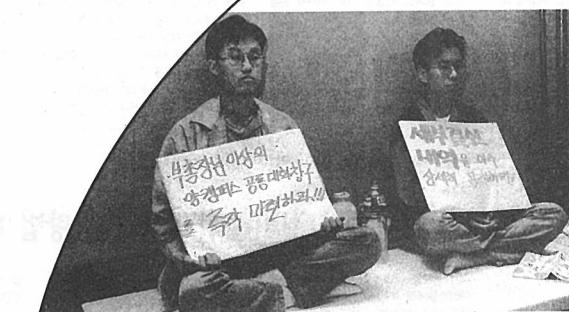


한반도, 허리잘린 남쪽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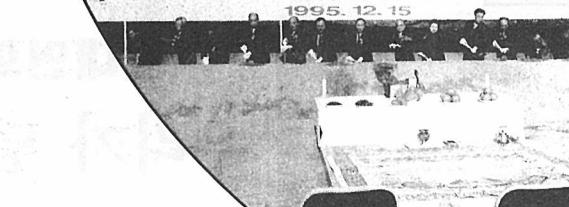
5·6공의 탓줄에 얹매여 뒤뚱이는 정권아래

팽창경제의 어두움 가득한 채

학



외국어대학교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 지난 12월 용인캠퍼스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기공식이 있었다. 97년 외공계획이며 새로운 지역학의 메카로 자리잡을 것이다.

내

다시 우뚝 서리라

제작: 사진부

학



6월 27일 지방자치제 선거는 민자당(현 신한국당)이 참패로 끝났다. 이는 확산된 반민자당, 반김정일 정서의 반영결과였다.



지난 5월 경기는 파업 도 하지 않은 한국 통신 노동자들에게 국가 전복 세력이란며 공권력을 투입하고 노조원을 연행했다. 이는 혼 정권의 노동정책이 군사정권의 그 것과 다를바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과 평양에서는 통일원년을 맞아 각각 8·15 민족공동행사가 치뤄졌다. 또 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표 정민주, 이해정 씨가 북한을 방문, 민족 이 함께하는 행사를 의의를 높였다.

외

분단 50년 남과 북은 다시
남과 남으로 한해를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 일년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희망찬 새 세상을 다짐하면서…….



◀ 천만 노동자의 단일 조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11월 11일 산업별노조 체제로의 전환, 노동법폐지 등을 내걸고 출범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조직정비와 함께 주요간부에 대한 수배 및 구속 조치 해제를 위한 투쟁 중이다.



◀ 김영삼정권 출범 이후 최대 정치이슈가 되었던 시민, 학생단체의 거센 5·18전상규명운동은 결국 5·18특별법 제정을 이뤘다. 이는 범국민적 요구가 이뤄낸 쾌거였다.



◀ 지난 해말 노·전 전직 두 대통령의 연이은 구속으로 국민들은 혀랄하다. 그것도 몇천억 원대의 뇌물수수, 내린수괴죄의 흥흉하기 이를 데 없는 죄목이다.



◀ 지난 6월 29일 해방 이후 단일 사고로는 최대 규모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있었다. 고질적인 부실 공사에 의한 인재라는 점이 우리를 더욱 이연하게 했다. 이현동 기사 폭발 사고와 함께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가 가지는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